

제51호(2013.3.14)

한·미 FTA 발효 1년, 농업부문 영향 분석

정 민 국 문 한 필 이 현 근

1. 한·미 FTA의 농축산물 양허 내용	3
2. 한·미 FTA 이행 경과와 농업부문 파급 영향	5
3. 향후 전망과 과제	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 수:	김정호 선임연구위원	02-3299-4221	jhkim@krei.re.kr
내용 문의:	정민국 연구위원	02-3299-4263	mkjeong@krei.re.kr
자료 문의:	원동환 전문원	02-3299-4274	wondh@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요약 ◇

우리나라는 2002년 칠레와 처음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한 후 10년간 47개국과 10개의 FTA 체결하였으며, 미국과는 2006년부터 협상에 착수하여 2012년 3월 15일에 FTA를 발효시켰음. 따라서 발효 1년을 맞는 한·미 FTA에 대해 미국산 농축산물의 관세 감축에 따른 수입량 변화와 국내시장의 파급 영향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한·미 FTA에서는 농축산물 협상대상 품목(HS코드) 1,531개 가운데 98%가 관세철폐 이행 품목으로 양허되었음. 주요 농축산물의 양허 내용을 살펴보면, 쌀은 양허에서 제외되었으며, 민감성이 낮은 품목은 단기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지만 민감성이 높은 품목은 장기에 걸쳐 관세가 철폐됨. 그리고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계절관세 적용, 저율관세쿼터(TRQ) 제공, 그리고 긴급수입제한조치(ASG) 적용 등을 통해 국내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시장개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함.

한·미 FTA 발효 후 약 1년 동안(2012.3.15~2013.2.28)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59.4억 달러로 전년 동기간 대비 16.8% 감소하였음. 품목별로는 관세 감축 폭이 큰 오렌지 등 신선 과일의 수입은 예년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나, 축산물의 수입은 대부분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이는 돼지고기를 제외한 대부분 축산물의 관세가 장기간에 걸쳐 철폐되기 때문에 1년차 관세 감축률이 크지 않은 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국내 축산물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국내산 가격이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FTA 이행에 따른 국내 농축산물의 파급 영향은 이행 초기에는 관세감축률이 작아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품목과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즉, 단기적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쟁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피해 보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FTA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등 조사·분석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FTA 국내보완대책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과 성과 평가를 통한 실효성 제고가 필요함. 나아가 FTA와 기후변화 등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변화에 미치는 다양한 충격에 대응하여 직불제, 보험 등 분야에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해야 함.

1. 한·미 FTA의 농축산물 양허 내용

□ 한·미 양국은 2006년 6월 초에 협상을 개시, 2010년 12월에 최종 타결, 2012년 3월 15일부터 협정 발효

- 우리나라는 2002년에 칠레와 처음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한 이후 10년간 총 47개국과 10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미국은 8번째로 FTA를 체결한 국가임¹⁾

□ 한·미 FTA의 농축산물 협상대상품목(HS코드) 1,531개 중 1,502개 (98%)가 관세철폐 이행 품목으로 양허

- 농업분과의 협상대상 품목 수는 1,531개이며, 민감성이 낮은 품목은 대부분 단기에 관세를 철폐하는 반면 민감한 품목은 관세철폐 기간을 최장 20년까지로 설정됨
- 2012년 국내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280억 달러) 중 미국산이 22.4%를 차지하며,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관세철폐 이행 대상임
 - 쌀은 양허 제외, 민감성이 낮은 품목은 단기 관세철폐, 민감성이 높은 품목은 장기 관세철폐²⁾
-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기간 장기화뿐만 아니라 계절관세, 저율 관세쿼터(TRQ) 제공, 긴급수입제한조치(ASG) 적용 등 국내 생산농가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함

-
- 1) 2013년 3월 기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상대국은 칠레(2002.4월), 싱가포르(2004.11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개국(2005.7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2006.4월), 인도(2008.9월), 유럽연합(EU) 27개국(2009.10월), 페루(2010.8월), 미국(2010.12월), 터키(2012.3월), 콜롬비아(2012.6월) 등임.
 - 2)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중에서 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은 모두 934개(61%)로 여기에 포함된 품목들은 주로 가공용 원료, 사료곡물, 종자(종축)용 등으로 원료 또는 투입재 성격이 강함. 한편, 관세철폐 기간이 20년으로 가장 길게 설정된 품목은 후지사과와 동양배임.

표 1. 한·미 FTA 주요 농축산물 양허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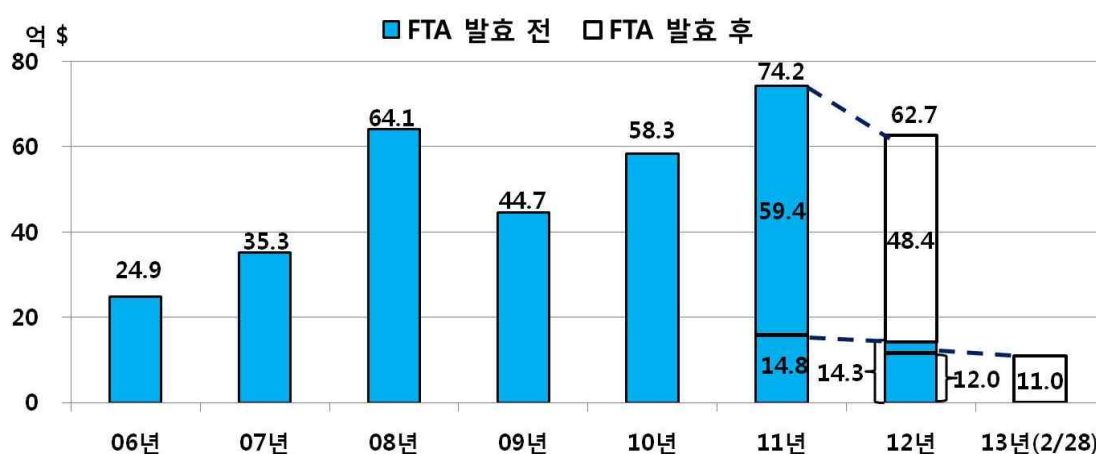
품 목	양허 내용
쌀	양허 제외
보리(269~513%)	15년 철폐, TRQ(2,500톤, 매년 2% 증량), ASG
감자(304~455%)	• 신선/냉장: 현행유지, TRQ(3,000톤, 매년 3% 증량) • 가공용(칩): 세번 분리, 계절관세 → 5~11월: 7년 유예 후 8년 철폐, 12~4월: 즉시 철폐 • 분/플레이크: 10년 철폐, ASG • 전분: 15년 철폐, ASG
옥수수(226~630%)	• 팜콘용: 7년 철폐, ASG(이행 4년차까지 2단계 발동기준물량 설정) • 전분: 15년 철폐, TRQ(1만 톤, 매년 3% 증량) • 종자용: 5년 철폐
대두(487%)	• 식용: 현행유지, TRQ(1만 톤, 5년차까지 26,523톤으로 단계적 증량, 5년차 후부터 매년 3% 증량) • 채유 및 박용: 즉시 철폐
쇠고기	• 쇠고기(40%): 15년 철폐, ASG(1년차 27만 톤, 15년차 35만 톤, 매년 6천 톤 증량) • 족/꼬리(18%): 15년 철폐
돼지고기	• 냉장 삼겹/갈비/목살(22.5%): 10년, ASG(0.8~1.4만 톤, 매년 6% 증량) • 냉동 기타(목살/갈비살): 2016.1.1 철폐 • 냉장 도체 및 이분도체, 전지/후지, 냉동육, 설육, 가공품: 2014.1.1. 철폐
닭고기 (18~20%)	• 냉동/통닭(500g이하)/가슴/날개, 냉장 통닭: 12년 • 냉동 닭다리, 냉장: 10년
낙농품(분유 176%, 연유 89%, 유장 49.5%, 치즈 36%, 버터 89%)	• 분유, 연유: 현행유지, TRQ(5,000톤, 매년 3% 증량) • 유장: 20% 시작 10년 철폐, TRQ(3,000톤, 매년 3% 증량) • 치즈: 10년/15년 철폐 • 버터: 10년 철폐, TRQ(200톤, 매년 3% 증량)
꿀	• 천연꿀(243%): 현행유지, TRQ(200톤, 매년 3% 증량) • 인조꿀(243%), 로열제리(8%), 벌꿀조제품(8%): 10년 철폐
사과(45%)	• 후지: 세번 분리, 20년 철폐, ASG(23년), 발동기준은 모든 종류의 사과를 포함하며, 이행 11년차부터는 후지사과만 적용) • 기타: 10년 철폐
배(45%)	• 동양배: 세번 분리, 20년 철폐 • 기타: 10년 철폐
포도(45%)	계절관세 → 5.1~10.15: 17년 철폐, 10.16~4.30: 24% 시작, 5년 철폐
오렌지(50%)	계절관세 → 9~2월: 현행유지, TRQ(2,500톤 매년 3% 증가), 3~8월: 30% 시작, 7년 철폐
감귤(144%)/키위(45%)	15년 철폐
복숭아/단감(45%)	10년 철폐
수박/멜론(45%)	12년 철폐
딸기(30~45%)	• 신선(45%): 9년 철폐(초본), 12년 철폐(나무) • 냉동(30%): 5년 철폐
토마토(8~45%)	• 신선/냉장(45%): 7년 철폐 • 기타: 5년 철폐
고추(270%)	• 신선/건조/가루: 15년 철폐, ASG(18년) • 냉동: 15년 철폐
마늘(360%)	• 통/간/일시저장/건조: 15년 철폐, ASG(18년) • 냉동: 15년 철폐
양파(135%)	• 신선/건조: 15년 철폐, ASG(18년) • 냉동: 12년 철폐
파(27%)	• 건조: 7년 철폐 • 쪽파: 즉시 철폐
무(30%)	• 신선: 10년 철폐 • 건조: 7년 철폐
배추(27%)	• 신선/냉장: 5년 철폐
연뿌리(27%)	• 설탕저장처리: 5년 철폐
양배추(30%)	• 신선: 즉시 철폐 • 건조: 10년 철폐
당근(30%)	• 신선: 5년 철폐 • 건조/일시저장: 10년 철폐
참깨, 참기름(630%)	• 15년 철폐, ASG(18년)
생강(377.3%)	• 신선: 15년 철폐, ASG(18년) • 설탕저장처리(30%): 5년 철폐
인삼	• 수삼, 홍삼, 백삼 등 7 품목(222.8~754.3%): 18년 철폐, ASG(20년), TRQ(5.7톤, 매년 3% 증량) • 홍삼가공품 9 품목(754.3%): 15년 철폐, ASG(18년) • 인삼차, 홍삼차, 인삼음료 등 인삼 관련 조제식료품(20%): 10년 철폐 • 백삼분 2 품목(18%): 15년 철폐 • 의약품 3 품목: 즉시 철폐

2. 한·미 FTA 이행 경과와 농업분야 파급 영향

2.1. 한·미 FTA 이행과 농축산물의 수입 변화

□ 한·미 FTA 발효 후 약 1년 동안(2012.3.15~2013.2.28)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59.4억 달러, 전년 동기간 대비 16.8% 감소

그림 1. 대(對) 미국 농축산물 수입액 동향³⁾



주: 2012년도의 흰색 부분은 한·미 FTA 이행기간인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입액을 나타냄.
 자료: 관세무역개발원(3.15-3.31 수입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부류별로 보면, FTA 발효 이후 1년 동안 미국산 곡물과 축산물 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과일과 채소의 수입은 증가함
- FTA 발효 이후 미국산 곡물 수입은 전년보다 12.2억 달러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 대미 농축산물 수입액에서 곡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36%에서 22%로 낮아짐

3) 한·미 FTA 발효와 동시에 양허안에 따라 이행 첫째 수입관세가 감축되었으며, 2013년 1월 1일에는 FTA 이행 2년차 관세감축이 적용되었음. 발효 이후 1년을 관세감축 시점을 기준으로 두 구간으로 나누어 볼 경우, FTA 이행 첫째(2012.3.15~12.31)의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48억 달러로, 전년 동기간에 대비 18.5% 감소하였으며, 2013년 1월 1일부터 2월말까지 대(對)미 농축산물 수입액은 11억 달러로, FTA 발효 전인 전년 동기간(2012.1.1~2.28)보다 8.3% 감소함

- 이행 첫째 미국산 축산물 수입은 전년보다 3억 달러 감소. 그러나 곡물 수입의 급감으로 인해 축산물 비중은 23%를 유지
- 반면, 미국산 기타 가공농식품 수입은 전년보다 1.6억 달러, 미국산 과일은 1.2억 달러 증가하였으며, 채소⁴⁾와 임산물 수입도 전년보다 0.2억 달러 증가

표 2. 미국산 농식품 부류별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 천 톤, %

구 분		평년(09~11) (3.15~익년2.28)		2011년 (3.15~익년2.28)		2012년 (3.15~익년2.28)		증 감 율			
								평년 대비		전년 대비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농 산 물	소계	4,202	10,349	4,918	9,688	4,000	6,729	-4.8	-35.0	-18.7	-30.5
	곡물	2,158	7,783	2,542	7,239	1,327	3,954	-38.5	-49.2	-47.8	-45.4
	과일	292	160	366	197	487	230	66.7	43.6	32.9	16.9
	채소	61	40	60	40	80	57	30.6	44.1	32.8	44.5
	기타	1,691	2,366	1,950	2,212	2,106	2,488	24.5	5.2	8.0	12.5
축산물		1,113	379	1,639	484	1,338	384	20.2	1.1	-18.4	-20.8
임산물		547	980	580	814	602	759	10.1	-22.5	3.9	-6.8
합계		5,863	11,709	7,138	10,987	5,941	7,872	1.3	-32.8	-16.8	-28.4

자료: 관세무역개발원(3.15-3.31 수입 및 2013년 2월 잠정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세청

□ FTA 이행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부터 농축산물 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북미지역 기상이변과 국내 축산물가격 하락 때문

- ① 북미지역의 기상이변으로 미국의 곡물 생산과 수출이 급감하였고,
- ② 구제역 여파로 축산물 수입이 급증했던 2011년과 달리 국내 축산부문의 공급과잉과 가격하락으로 육류 수입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임

○ 2012년 여름 북미지역의 이상고온과 가뭄으로 인해 FTA 발효 이후 미국산 옥수수(사료 및 가공용)의 수입액은 전년보다 69.9% 감소함⁵⁾

4) 미국산 주요 채소류의 수입량 변화는 <부록 1>에 제시함의(부표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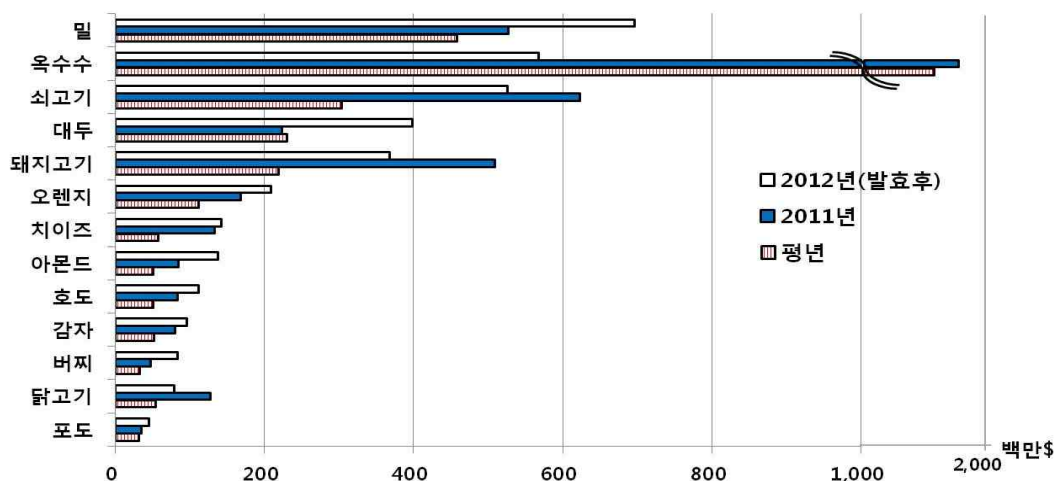
5) 미국의 밀은 5월에 수확되기 때문에, 6월에 본격화된 가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반면, 9월에 수확되는 옥수수는 가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음. 2012년 우리나라의 옥수수 수입액은 전년보다 소 폭 증가한 26억 달러에 달하며, 미국으로부터의

- 특히, 옥수수의 경우 미국의 작황부진으로 인해 FTA 발효 이후 대미 수입액은 13.3억 달러가 감소(19억 → 5.7억 달러). 이는 전체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 감소분 12억 달러(71.4억 → 59.4억 달러)보다 큼)
- 가뭄 영향을 받지 않아 생산량이 증가하고 국제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미국산 밀은 수입액이 32.2% 증가

□ FTA 발효 이후 수입이 크게 증가한 품목은 밀, 대두, 오렌지, 체리, 아몬드, 호도 등으로 국한

- 사료용이나 가공용으로 주로 수입되고 있는 곡물은 대부분 UR 농업협정 결과 이미 수입관세가 낮을 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량에 근접한 물량을 TRQ로 수입해 왔기 때문에 FTA 이행으로 추가적인 수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그림 2. 한·미 FTA 발효와 미국산 주요 농산물(상위 20위 이내) 수입 변화⁷⁾



- 주 1) 평년, 2011년, 2012년 수입액은 각 년도 3월 15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수입액을 나타냄.
 2) 2012년 기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액 상위 20개 품목에는 상기의 13개 품목 이외에도 혼합조제식료품, 사료용근채류, 펄프, 면, 양조박, 침엽수원목, 대두박 등이 있음.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이 감소한 대신 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 동유럽으로부터 수입이 크게 증가함.

- 6) 미국 농무성(USDA)에 의하면 2012년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보다 13% 감소하였고 수출량 또한 42% 감소하였음. 옥수수를 포함한 미국의 곡물생산량과 수출량의 변화는 <부록 1>에 제시하였음(부표 3 참조)
 7) FTA 이행 첫째 대미 수입액이 천만 달러 이상인 품목의 수입액 변화는 <부록 1>에 제시.

-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고 국제시장에서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이 높은 미국산 과일과 견과류의 수입이 크게 증가함
- 반면, 미국산 수입 비중이 높더라도 다른 국가와 경쟁이 치열한 품목(돼지고기, 닭고기, 유제품), 그리고 이행 첫째 관세인하 폭이 적은 품목(쇠고기)은 FTA 발효 이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전년에 비해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함

2.2. 미국산 신선과일 수입과 파급효과

□ FTA 발효 이후 관세감축 폭이 큰 오렌지, 체리, 포도 등이 예년보다 크게 증가

- FTA 발효와 동시에 기준관세가 20%p 하락한(50%→30%) 오렌지의 수입액(수입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24.5%(11.2%) 증가함⁸⁾
- FTA 발효에 따라 24%의 기준관세가 완전 철폐된 미국산 체리 또한 전년 동기간 대비 수입액(수입량)이 73.7%(82.9%) 증가함
- FTA 이행으로 10월 16일부터 24%의 관세가 적용된 미국산 포도의 수입액(수입량)도 전년 동기간 대비 28.6%(19.6%) 증가함⁹⁾

8) 국내 오렌지 시장은 1997년 7월 수입쿼터가 소멸된 이후 시장개방의 수위를 높여오면서 양적으로 팽창하여 왔음. 수입쿼터가 소멸된 1997년 7월에 신선 오렌지 양허세율은 84.3%였으며, 이후 매년 5%가량 감소하여 2004년부터는 50%의 양허세율이 적용되어 왔음. 한·미 FTA 협상 결과 계절관세가 설정된 오렌지의 경우 3~8월 기간의 관세는 이행 첫날 30%로 감축된 다음 이후 6년 동안 균등철폐되는 반면, 나머지 기간은 현행 50%의 관세가 유지됨. 한편, 무관세 TRQ는 2,500톤에서 시작하여 매년 3%씩 증량됨.

9) 계절관세가 설정된 포도의 경우 10월 16일부터 4월까지 적용되는 협정관세는 FTA 발효와 동시에 24%로 감축된 다음 이후 4년 동안 균등철폐되는 반면, 나머지 기간은 45%의 기준관세가 17년 동안 균등철폐됨. 2012년도 기준으로 칠레산은 우리나라 전체 포도(신선) 수입의 85%(1억 1,791만 \$), 미국산은 11.3%(1,567만 \$)를 차지함. 칠레산은 1~7월에 주로 수입되고, 미국산은 8~11월에 가장 많이 수입됨.

- 레몬과 자몽도 미국으로부터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수요층이 얇고 국산 과채류와의 대체관계가 미약하기 때문에 관세인하의 파급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표 3. 미국산 과일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 천 톤, %

구 분	평년(09~11) (3.15~익년2.28)		2011년 (3.15~익년2.28)		2012년 (3.15~익년2.28)		증 감 율				2012년 관세율
							평년 대비		전년 대비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오렌지	131.6	105.1	168.3	133.1	209.5	148.0	59.2	40.8	24.5	11.2	50/30
체리	36.0	4.9	48.2	5.6	83.8	10.2	132.8	108.3	73.7	82.9	0
포도	31.3	14.0	35.7	14.5	45.9	17.4	46.6	24.5	28.6	19.6	42.3/24
레몬	7.5	5.4	9.7	6.8	16.2	9.8	115.9	81.0	66.3	44.8	15
자몽	8.4	6.9	10.8	8.7	12.2	9.1	46.3	32.7	12.9	4.2	24
딸기	4.1	1.6	5.2	2.1	7.0	2.7	69.6	73.4	34.1	33.6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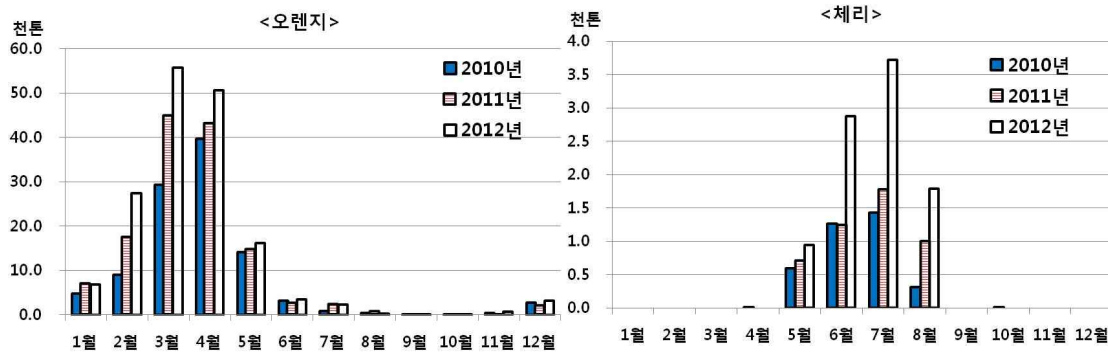
주 1) 딸기는 냉동(HS 0811-10-0000) 및 일시저장 처리(HS 0812-90-1000) 딸기만 수입됨. 딸기를 제외한 나머지 과일은 신선·냉장 관련 세번의 이행 첫째 관세율을 제시함.

자료: 관세무역개발원(3.15-3.31 수입 및 2013년 2월 잠정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관세청

□ FTA 이행으로 수입과일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되면서 해당 수입시기에 출하되는 국산 과일·과채의 소비량과 시장가격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

- 국산 과일과 과채는 계절별로 출하되는 품목들이 거의 고정되어 있고 품목별 수급과 상대가격에 따라 소비대체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산 오렌지의 수입량 증가는 오렌지 수입시기와 겹쳐 출하되는 과일·과채 시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침
- 미국산 오렌지는 1월부터 5월까지 주로 수입되는데, 국내에서 11월 이후 출하되는 감귤뿐만 아니라 3~5월에 출하되는 딸기, 참외, 토마토 등의 과채류와 일정한 소비대체 관계가 있음
- 미국산 체리도 5월부터 8월까지 대부분이 수입되는데, 국내에서 6~8월에 출하되는 국산 체리, 복숭아, 자두, 포도 등의 여름과일의 소비량과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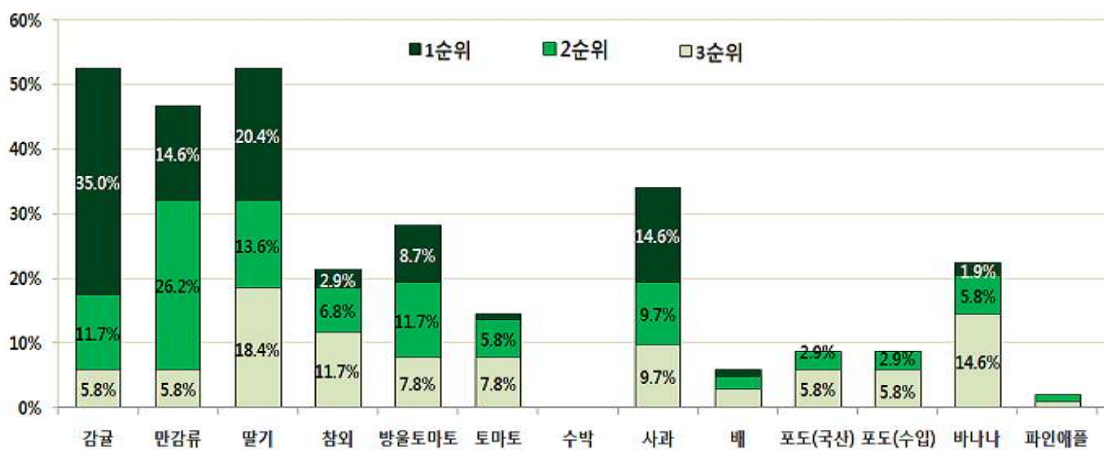
그림 3. 미국산 신선 오렌지 및 체리의 월별 수입량 추이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오렌지(체리) 구입을 늘리는 대신 국산 과일과 과채의 소비를 줄였다고 응답한 사람은 국내 소비자의 24%(9%)인 것으로 나타남
 - 국산 과일을 오렌지로 대체하였다는 소비자들은 오렌지 구입 대신에 지출을 줄인 대표적인 과일로 딸기, 감귤, 만감류, 사과, 방울토마토, 바나나, 참외순으로 응답
 - 감귤과 만감류 및 저장과일의 물량이 전년에 비해 크게 축소된 상황에서 딸기, 방울토마토, 바나나, 참외 등의 수요가 오렌지 소비로 상당 부분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4. 오렌지 구입으로 인해 지출 감소된 과일 순위



자료: 한·미 FTA 발효 직후 오렌지 관세인하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변화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함. 소비자 388명(수도권 거주, 주부)을 대상으로 2012년 4월 25~30일간 모바일 조사 실시.

□ 미국산 신선과일의 수입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량 저하에 따른 시장가격 상승으로 가시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음

○ 과일의 경우 2011년 수확기에 일조량이 적고 강우일수가 많아 2012년 출하량(저장물량)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2012년 봄 이상저온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과채류의 생산량도 크게 줄어들어 2012년 상반기의 과일과 과채 가격은 전반적으로 높게 형성됨

- 따라서 미국산 오렌지의 관세인하로 가시적인 수입피해는 발생하지 않음

표 4. 한·미 FTA 발효 이후(3/15-6/30) 주요 과일/과채 도매시장 가격 및 출하량

		사과 (원/15kg)	감귤 (원/10kg)	딸기 (원/2kg)	참외 (원/10kg)	토마토 (원/10kg)	방울토마토 (원/5kg)
물량 (톤)	2012	4,794	1,447	8,384	16,542	15,357	9,854
	2011	9,883	2,081	10,158	18,500	15,744	12,093
	평년	8,704	1,950	10,317	19,076	15,149	12,202
	12/11	-51.5%	-30.5%	-17.5%	-10.6%	-2.5%	-18.5%
가격 (원)	2012	78,098	22,179	14,164	37,297	24,434	16,824
	2011	36,571	16,217	14,344	35,847	20,364	14,118
	평년	42,492	19,737	12,083	32,141	17,661	13,584
	12/11	113.6%	36.8%	-1.3%	4.0%	20.0%	19.2%
판매액 (백만원)	2012	374,404	32,094	118,744	616,975	375,249	165,788
	2011	361,432	33,749	145,708	663,189	320,596	170,728
	평년	369,864	38,490	124,665	613,126	267,557	165,742
	12/11	3.6%	-4.9%	-18.5%	-7.0%	17.0%	-2.9%

자료: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 그러나 월별 수입통계와 도매시장 거래실적을 활용하여 미국산 오렌지와 국산 과일·과채간의 대체관계를 분석한 결과, 오렌지의 관세 인하는 감귤과 참외·딸기·토마토의 3~5월 도매가격을 일정 수준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오렌지 관세인하는 공급부족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던 봄철 과일·과채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결과적으로 소비자잉여는 증가한 반면 해당 농가의 조수입은 전년보다 감소하였음

○ FTA 이행 2년차의 미국산 오렌지 관세(3~8월)는 25%로 추가 인하되기 때문에, 금년 3~5월 과일·과채의 작황이 좋을 경우에는 오렌지 수입 증가로 국산 과일·과채의 가격에 다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2.3. 미국산 축산물 수입과 파급효과

□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산 축산물의 수입량은 대부분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

- 한·미 FTA 발효 전후 1년을 비교할 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12만 3천 톤에서 10만 5천 톤으로 14.7% 감소함
- 동 기간 미국산 돼지고기는 16만 톤에서 12만 7천 톤으로 21.0% 감소하였고, 닭고기 수입량도 8만 3천 톤에서 4만 8천 톤으로 41.7% 감소
- 다만, 동 기간 유제품인 치즈는 3만 톤에서 3만 2천 톤으로 7% 증가하였고, 유장은 1만 3천 톤에서 2만 1천 톤으로 52.4% 증가하였으며, 육가공품인 소시지는 7천 톤에서 8천 톤으로 3.4% 증가함

표 5. 미국산 축산물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 천 톤, %)

구 분	평년(09~11) (3.15~익년2.28)		2011년 (3.15~익년2.28)		2012년 (3.15~익년2.28)		증 감 율				2012년 관세율
							평년 대비		전년 대비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쇠고기	456.3	94.8	623.4	122.6	525.6	104.6	15.2	10.4	-15.7	-14.7	37.3
돼지고기	303.5	113.2	508.5	160.3	367.6	126.6	21.5	11.8	-27.7	-21.0	20.2
닭고기	80.5	57.4	128.1	82.6	79.3	48.2	-1.4	-16.1	-38.1	-41.7	18.0
치즈	85.2	20.1	133.2	30.1	142.2	32.2	66.9	60.4	6.7	7.0	33.6
유장	14.6	16.2	16.5	13.5	24.0	20.5	64.6	26.5	45.7	52.4	0
소시지	19.3	6.9	22.1	7.4	23.5	7.6	21.7	11.0	6.4	3.4	14.4

주1) 각 품목의 대표적인 세번의 이행 첫째 관세율을 제시. 쇠고기는 냉동 갈비(0202.20.1000), 돼지고기는 냉장 삼겹살(0203.19.1000), 닭고기는 냉동 닭다리(0207.14.1010), 치즈는 모차렐라(0406.10.1010), 유장은 사료용 변성유장(0404.10.2191), 소시지는 (1601.00.1000)의 관세율임.

2) 치즈의 관세율은 TRQ 물량(7천 톤, 무관세)을 초과할 경우 33.6%가 적용됨.

자료: 관세무역개발원(3.15-3.31 수입 및 2013년 2월 수입 잠정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관세청

□ 미국산 축산물 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FTA 이행으로 인한 관세감축보다는 국내 수급요인이 더 크게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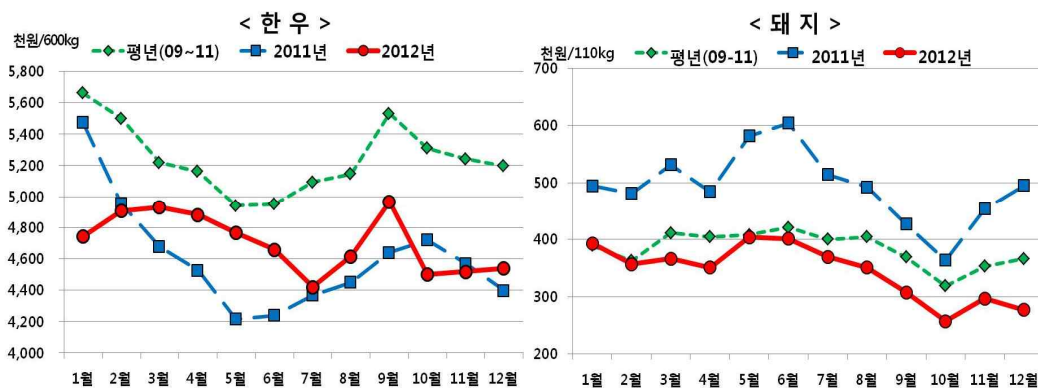
○ 한·미 FTA이행 첫째 미국산 쇠고기 관세는 2.7%p 인하(40%→37.3%) 되었으나, 미국의 BSE 발생과 한우 도축두수 증가(17.4%) 및 가격 하락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감소함

- 2102년 한우 도축두수는 전년대비 17.4% 증가하였고, 한우 도매가격은 평년보다 낮게 형성

○ 돼지고기 또한 FTA 이행보다는 국내 공급량 증가와 국내 가격하락으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량이 감소함

- 2010년 말 구제역 이후 돼지두수 감소로 2011년 돼지고기에 대한 긴급할당관세 물량¹⁰⁾이 많이 수입된 반면, 양돈농가의 적극적인 모돈 입식으로 2012년 사육두수는 구제역 이전 수준을 대부분 회복하였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돼지고기 가격의 하락세 지속

그림 5. 한우 및 돼지 월별 가격 동향



주1) 한우 가격은 지육가격(원/kg, 등외·결합제외)×생체중(600kg)×지육율(0.597)을 적용하여 산출

2) 돼지 가격은 지육가격(원/kg, 탕박기준)×생체중(110kg)×지육율(0.767)을 적용하여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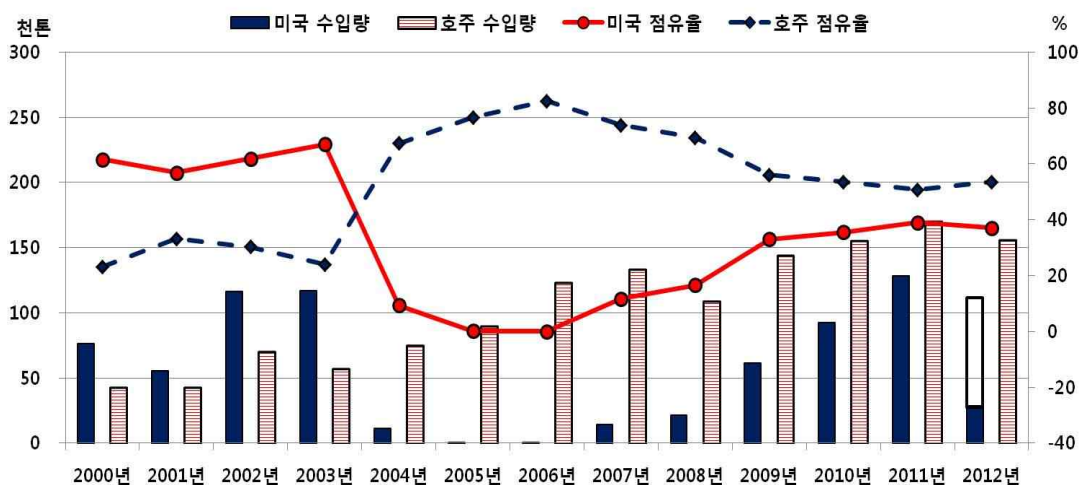
자료: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10) 구제역으로 인해 2010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돼지는 332만 마리, 젖소는 3.6만 마리가 매몰 처분된 결과 돼지 사육마리 수는 2010년 12월의 988만 두에서 2011년 3월에 704만 두까지 감소하였고 젖소는 같은 기간 동안 43만 두에서 39.6만 두까지 감소함. 2011년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물량은 2011년에 26만 톤, 2012년 상반기에 10만 톤이 설정되었으며, 주로 삼겹살과 가공육을 대상으로 함. 유제품 또한 2011년에 14.2만 톤, 2012년 상반기에 4.2만 톤의 수입물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함.

□ FTA 이행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의 관세는 장기간에 철폐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국내 시장에서 미국산의 가격우위가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미국산과 국내시장에서 경합하고 있는 호주산 쇠고기 수입량도 전년 대비 8.4% 감소했으나(수입액은 11.3% 감소), BSE 영향을 받은 미국산에 비해 감소 폭이 작아 호주산 쇠고기의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증가함
 - 국내시장에서 국별 쇠고기 수입량 비중 변화('11년 → '12년)
 - : 미국산 37.4%(12.8만 톤) → 35.4%(10.6만 톤)
 - : 호주산 49.5%(17.0만 톤) → 52.2%(15.6만 톤)

그림 6. 미국 및 호주산 쇠고기 수입량 및 수입점유율 추이



자료: 관세무역개발원(미국 '12.3.15-3.31 수입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미국산 돼지고기의 관세가 감축되었으나 한·EU FTA 이행으로 경쟁국인 유럽의 돼지고기 관세 또한 감축됨에 따라 국내시장에서 관세 감축으로 인한 미국산과 유럽산 돼지고기의 시장 점유율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국별 돼지고기 수입량 비중 변화('11년 → '12년)
 - : 미국산 31.4%(16.4만 톤) → 32.5%(13.0만 톤)
 - : EU산 41.4%(21.5만 톤) → 39.9%(15.9만 톤)

- 미국산 닭고기의 관세 감축에도 불구하고 수출단가가 낮아진 브라질산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미국산의 수입점유율은 크게 하락함
 - 국별 닭고기 수입량 비중 변화('11년 → '12년)
 - : 미국산 74.4%(8.6만 톤) → 47.0%(5.4만 톤)
 - : 브라질 21.4%(2.5만 톤) → 49.3%(5.7만 톤)

□ 단기적인 FTA 효과는 이행 첫해에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축산부문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쇠고기의 경우 관세 감축 폭이 확대될 경우 국내시장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국내외 가격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고급육 생산 중심의 시장 차별화 정책으로 한우고기 소비기반이 확보되어 있어 생산비절감 등의 노력을 통해 관세 감축에 따른 영향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경우 관세 감축이 확대될수록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양돈산업의 경우 종돈과 사료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산 돼지고기의 시장 차별화에 한계가 있으며, 수입 돼지고기와 시장 차별화를 위한 한국형 종축 개발 및 보급 확대 등이 양돈산업의 중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육계산업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닭고기 생산을 위해 출하중량 증가와 통닭 중심의 유통구조에서 벗어나 부분육 중심의 유통체계 구축 및 상품 개발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3. 향후 전망과 과제

☐ 농축산물 수입은 관세감축 외에도 기상이변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음

- 한·미 FTA 이행 첫째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였는데, 이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미국의 곡물 수출감소와 국내 축산부문의 공급과잉이 주된 원인임
- 한·미 FTA 발효 이후 관세감축에 따른 수입 증대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품목은 신선 과일 일부와 기타 가공식품 등으로 국한됨

☐ 올해 1월 1일부터 한·미 FTA 이행 2년차의 관세감축이 진행됨으로써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이 점진적으로 증가 전망

- FTA 이행에 따른 국내 농축산물의 파급 영향은 이행초기에는 관세감축률이 작아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세 감축률이 높아 피해품목 및 규모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관세감축 폭이 확대될 경우 시장차별화가 부족한 국내산 돼지고기 및 닭고기 등 축산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출하기에 국산 과일 과채와 소비대체가 발생하는 미국산 신선 과일(오렌지, 체리, 포도 등)의 수입량 증가로 인한 생산농가의 직접·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됨

☐ 단기적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통해 피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할 필요

- FTA 이행이 진전될수록 피해예상 품목 모니터링 등 조사·분석 기능의 강화가 요구되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인과분석(수입 증가와 가격 하락)을 통해 피해보전의 정확성을 제고해야 함

- 정부는 「FTA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세감축에 따른 수입 증가 등의 명확한 영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피해보전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 시장차별화 등 국산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융자사업¹¹⁾의 내실화 필요

- FTA 시장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산 농산물의 품질경쟁력 제고를 통한 시장차별화가 필수적이며,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에 부응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은 수입 농산물에 비해 친환경적이고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급해야 함
 - 국산 농산물의 시장차별화와 식품안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소비의 전 단계에 걸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측면의 제반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함께 제도적 개선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
- FTA 국내보완대책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과 성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농업인 의견수렴을 통해 영농현장의 정책수요 파악과 기존사업의 개선, 신규사업 발굴 등 국내대책의 내실화와 성과확산을 도모해야 함
 - FTA 국내대책의 수립 이후 그동안 국내 구제역 발병, 국제곡물가격 급등,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국내 농산물가격의 불안정을 포함한 대내외적인 농업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국내대책의 기본방향과 세부사업 내용을 수정 보완 필요
 - 한·중 FTA 추진 등 FTA 체결국이 확산될 것에 대비하여 국내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의 노력 필요

11) 정부는 한·미 FTA를 비롯하여 한·EU FTA 추진에 따른 국내 농업분야 경쟁력 제고와 체질개선을 위한 보완대책으로 2008년부터 2021년까지 농축산업에 25조 4억 원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8년부터 생산시설현대화, 고품질 브랜드 육성, 유통체계 개선, 기술개발, 해외시장개척, 맞춤형 농정, 신성장동력 창출 관련 세부사업들을 추진 중임.

□ FTA, 기후변화 등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변화에 미치는 다양한 충격에 대응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과 가축공제를 통해 농산물 생산량이나 가축 사육 두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으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 분산 기능은 미흡한 실정이며, 현행 농업보험을 통한 농가의 소득안정에도 한계가 있음
- 농가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생산량 중심으로 설계된 농작물 재해보험과 가축공제의 보장범위를 확대하여 가격하락의 일정부분도 보험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농축산물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농업보험으로 분산시키는 데에는 민간보험의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가가 재보험 기능을 담당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직불제를 통합 내지 조정하는 논의(수입보험제도 포함)와 연계하여, 포괄적인 수입피해 또한 보전할 수 있는 농가소득안전망 구축 수단을 강구할 필요

<부록> 품목별 미국산 수입과 미국의 곡물 생산·수출 변화

부표 1. FTA 발효 전후 대(對)미 주요 농축산물 수입액 변화

단위: 천 달러, %

구 분	3개년 평균 (09-11)	2011년	2012년	증감율		대(對)미 수입액 비중		기준 관세	이행첫해 관세감축 폭(%p)
				평균 대비	전년 대비	2011년	2012년		
총계	5,862,727	7,137,550	5,941,049	1.3	-16.8	26.8	23.8		
밀	410,871	526,693	696,484	69.5	32.2	33.5	42.7	1.8	1.8
옥수수	1,660,954	1,889,139	567,880	-65.8	-69.9	81.0	24.7	328	328
쇠고기	456,278	623,400	525,584	15.2	-15.7	39.6	41.2	40	2.7
대두 (3)	272,659	223,713	398,759	46.2	78.2	35.3	55.7	487	487
돼지고기	302,527	508,469	367,608	21.5	-27.7	34.6	34.6	25	5
혼합조제식료품	238,357	308,704	330,250	38.6	7.0	49.9	52.1	8	1.6
사료용근채류	196,090	227,195	281,513	43.6	23.9	89.0	84.0	100.5	6.7
오렌지	131,644	168,282	209,544	59.2	24.5	93.2	92.0	50	20
펠프	204,743	199,152	170,652	-16.7	-14.3	12.3	14.3	0	0
치이즈	85,206	133,230	142,193	66.9	6.7	39.9	43.0	36	2.4
아몬드 (7)	67,412	84,891	138,249	105.1	62.9	107.5	101.6	8	8
면	215,632	368,239	135,719	-37.1	-63.1	46.2	23.5	1	1
양조박	115,263	130,310	134,506	16.7	3.2	96.6	94.9	5	5
호도	65,487	83,741	112,101	71.2	33.9	106.6	84.7	30	5
침엽수원목	149,942	147,171	109,765	-26.8	-25.4	21.9	22.0	2	2
감자	65,940	80,827	96,567	46.4	19.5	85.6	82.9	18	18
대두박	87,623	74,638	92,316	5.4	23.7	12.6	13.2	1.8	1.8
기타과실	53,223	69,293	89,121	67.4	28.6	32.9	33.2	30	4.3
버찌 (4)	36,001	48,233	83,800	132.8	73.7	91.6	97.3	24	24
닭고기	80,495	128,114	79,337	-1.4	-38.1	51.0	28.4	20	2
쌀	78,250	119,891	55,727	-28.8	-53.5	28.8	34.7	-	-
초코렛	39,207	43,833	49,953	27.4	14.0	27.9	31.4	8	1.6
포도	31,327	35,707	45,915	46.6	28.6	23.5	26.1	45	21
기타코코아조제품	22,422	32,501	40,671	81.4	25.1	42.2	51.3	8	1.6
커피 (10)	24,228	26,975	39,658	63.7	47.0	4.8	10.8	8	1.6
양장	20,245	26,969	34,045	68.2	26.2	43.5	41.9	27	2.25
잎담배 (2)	18,068	16,577	32,737	81.2	97.5	9.4	12.9	20	2
기타유지가공품	23,151	29,666	31,962	38.1	7.7	47.1	48.6	8	1.6

구 분	3개년 평균 (09-11)	2011년	2012년	증감율		대(對)미 수입액 비중		기준 관세	이행첫해 관세감축 폭(%p)
				평균 대비	전년 대비	2011년	2012년		
기타베이커리제품	23,305	23,007	31,137	33.6	35.3	26.0	29.5	8	1.6
개 사료	23,846	26,978	30,928	29.7	14.6	29.3	29.3	5	5
팜톤 (6)	16,649	15,908	26,279	57.8	65.2	32.7	44.7	8	8
배합사료 (8)	8,846	15,193	24,075	172.1	58.5	26.3	31.2	4.2	4.2
유장	14,584	16,473	24,000	64.6	45.7	13.0	20.8	49.5	49.5
소시지	19,295	22,061	23,475	21.7	6.4	93.3	98.0	18	3.6
토마토	17,939	18,338	23,104	28.8	26.0	43.6	51.9	45	6.4
스위트콘	21,342	18,556	23,082	8.2	24.4	57.9	57.7	15	3
기타 축산조제품	16,554	31,199	22,961	38.7	-26.4	19.5	32.5	8	1.4
에틸알코올 (1)	1,845	3,111	20,505	1,011.3	559.1	1.6	10.6	8	8
포도주 (9)	11,049	11,935	18,211	64.8	52.6	9.7	13.5	15	15
비스킷	14,183	16,989	17,363	22.4	2.2	23.6	21.3	8	1.6
레몬 (5)	7,509	9,748	16,214	115.9	66.3	76.7	75.2	30	15
베이커리반죽	14,663	17,660	15,917	8.6	-9.9	70.4	65.3	8	1.6
유당	8,543	13,121	15,832	85.3	20.7	52.3	45.2	49.5	9.9
단일과실조제품	11,486	11,387	13,541	17.9	18.9	74.4	82.3	9	0.9
말	10,808	13,010	12,495	15.6	-4.0	84.0	58.8	8	1.6
난백	9,254	12,014	12,284	32.7	2.2	50.1	42.0	8	1.6
그레이프푸르트	8,355	10,825	12,222	46.3	12.9	76.3	68.0	30	6
캔디	8,137	9,990	11,851	45.6	18.6	16.6	17.7	8	1.6
기타제재목	11,962	13,323	11,475	-4.1	-13.9	25.6	21.2	5	1.7
대두유	35,348	19,663	11,394	-67.8	-42.1	5.3	3.0	5.4	0.54
차, 마태 조제품	6,185	8,071	11,345	83.4	40.6	50.8	55.8	40	5.7
곡류조제품	8,114	9,842	11,301	39.3	14.8	40.6	44.3	5.4	5.4

주 1) 각연도 수입액은 3월 15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의 실적임.

2) 품목별 기준관세는 해당 HS code 중 대표적인(대미 수입액이 가장 큰) 세번의 관세율임.

3) FTA 발효 이후 기간(2012.3.15~2013.2.28)의 수입액이 천만 달러 이상인 품목만 제시하였으며, 음영이 표시된 품목명 우측의 괄호안의 숫자는 전년대비 수입증가율이 높은 순위(1~10위)임.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협회

부표 2. FTA 발효 전후 미국산 채소 수입 변화

단위 : 천 달러, 톤, %

구 분	평년(09~11) (3.15~익년2.28)		2011년 (3.15~익년2.28)		2012년 (3.15~익년2.28)		증 감 율				2012년 관세율
							평년 대비		전년 대비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상추	1,116	1,162	1,673	1,473	2,979	2,943	167.0	153.4	78.0	99.8	40.5
결구상추	490	498	852	847	2,822	2,640	475.7	430.5	231.2	211.7	40.5
오이	3,233	2,139	2,705	1,611	2,755	1,757	-14.8	-17.9	1.9	9.0	24
브로콜리	119	73	342	211	1,707	1,221	1,329	1,566	399.1	479.6	21.6
양배추	2	7	0	0	241	291	12,489	4,055	-	-	0
당근	307	77	339	80	221	80	-28.1	4.1	-34.8	0.1	21.6

주 1) 각 품목별 대표적인 세번의 이행 첫째 관세율을 제시함.

2) 오이는 초산조제, 당근은 냉동/건조가 주로 수입되며, 기타 채소류는 신선형태로 수입

자료: 관세무역개발원(3.15-3.31 수입 및 2013년 2월 잠정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관세청

부표 3. 미국의 곡물 생산량과 수출량 변화(2011년, 2012년)

단위: 천 톤, %

구 분	생산량		증감율	수출량		증감율
	2011	2012		2011	2012	
보리	3,392	4,796	41.4	192	196	2.1
옥수수	313,949	273,832	-12.8	39,184	22,861	-41.7
면화	15,573	17,010	9.2	11,714	12,500	6.7
대두	84,192	82,055	-2.5	37,063	36,605	-1.2
쌀(정곡)	5,866	6,356	8.4	3,222	3,378	4.8
밀	54,413	61,755	13.5	28,563	28,576	0.0

자료: USDA PSD Online

부표 4. FTA 발효 이후 수입액 감소 폭이 큰 품목(10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수입액			증감율		대(對)미 수입액 비중		증감사유
	3개년 평균	2011년	2012년	평년 대비	전년 대비	2011년	2012년	
옥수수	1,661	1,889	56	-65.8	-69.9	81.0	24.7	12년 6월 이후 북미지역의 가뭄으로 생산·수출 감소
면	216	368	136	-37.1	-63.1	46.2	23.5	11년 북미지역의 가뭄으로 수확(10월경 수확)량 감소 및 수출 둔화
쌀	78	120	56	-28.8	-53.5	28.8	34.7	12년 9월 21일 미국산 쌀의 비소검출로 수입 중단
대두유	35	20	11	-67.8	-42.1	5.3	3.0	중국의 대두유 수요증가로 인한 국제가격 강세
닭고기	80	128	79	-1.4	-38.1	51.0	28.4	국내 공급증가와 수입선 다변화(브라질 등)
돼지고기	303	508	368	21.5	-27.7	34.6	34.6	국내 공급증가와 EU산과 경쟁 심화
기타 축 산조제품	17	31	23	38.7	-26.4	19.5	32.5	
침엽수원 목	150	147	110	-26.8	-25.4	21.9	22.0	중국의 원목 수요 증가
쇠고기	456	623	526	15.2	-15.7	39.6	41.2	국내 공급증가와 미국의 2012년 4월 BSE 발생
펄프	205	199	171	-16.7	-14.3	12.3	14.3	덤핑방지관세(4.03~1.79%) 3년 연장(4월 10일)

「KREI 농정포커스」 발행 목록

2013년

- 제51호 한·미 FTA 발효 1년, 농업부문 영향 분석(정민국, 문한필, 이현근)
- 제50호 농식품 수출의 최근 동향과 지원 방안(박기환)
- 제49호 식물공장의 전망과 정책 과제(김연중, 한혜성)
- 제48호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지인배, 허 덕, 송우진, 우병준)
- 제47호 2012년 농촌관광 수요와 시장규모(김용렬, 박시현)
- 제46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과제(박헌태, 박기환)
- 제45호 축산물 유통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정민국)
- 제44호 국민행복 시대의 산림정책 방향과 과제(석현덕, 장철수, 민정택, 정호근)
- 제43호 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강창용)
- 제42호 도시민이 바라는 농촌정주 공간의 모습(김용렬, 성주인)
- 제41호 농자재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와 시사점(강창용)
- 제40호 소비자의 안심 식탁을 위한 정책 과제(이계임, 이동소)
- 제39호 2013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박준기)

2012년

- 제38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2년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37호 농업수입보장보험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정원호)
- 제36호 식품 수급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황운재)
- 제35호 2012년 김장 수급 전망(서대석, 이형용, 권희민, 이용선)
- 제34호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의 영향 분석과 시사점(송우진, 정민국)
- 제33호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장단기 대응방안(성명환, 한석호, 승준호, 신승희)
- 제32호 도시농부 : 도농상생의 가교(김태곤, 허주녕, 김예슬)
- 제31호 외국인이 본 우리나라 농촌관광(김용렬, 윤유식)
- 제30호 농산물 비축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최병옥, 승준호)
- 제29호 2012년 추석 과일 수급 전망(한재환, 신유선, 이미숙, 윤종민, 이용선)
- 제28호 최근 농가경제의 동향과 정책 과제(이병훈, 윤영석)
- 제27호 중국의 FTA 협상 전략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최세균,

- 전형진, 정대회)
- 제26호 농촌지역 마을회관의 이용 실태와 시사점(김동원, 이병훈, 김광선, 박혜진)
- 제25호 약용식물의 수급 동향과 정책 과제(정호근, 조국훈)
- 제24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실태와 개선방안(국승용)
- 제23호 구제역 이후 양돈산업의 동향과 과제(정민국, 우병준, 김원태)
- 제22호 북한의 가물 실태와 영향 분석(권태진, 남민지)
- 제21호 농어촌의 과소화 마을 실태와 정책 과제(성주인, 채종현)
- 제20호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시사점(박대식, 마상진)
- 제19호 중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시사점(문한필, 전형진)
- 제18호 미국 BSE 발생이 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17호 한·중FTA와 농업 부문의 대응 방안(어명근)
- 제16호 견고추 가격의 변동성과 시사점(김성우, 한은수, 김명환)
- 제15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와 정책 과제(김광선, 채종현, 윤병석)
- 제14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3호 최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김정섭, 성주인, 마상진)
- 제12호 농작물재해보험의 추진 성과와 과제(최경환)
- 제11호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황의식, 김동훈)
- 제10호 최근의 경지면적 변화 동향과 시사점(채광석)
- 제 9호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최세균, 정대회)
- 제 8호 최근 소값 하락의 원인과 대책 방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 7호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 적응 실태와 과제(박대식, 마상진)
- 제 6호 2012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최지현, 국승용, 박시현)

2011년

- 제 5호 2011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 4호 한·미 FTA, 농업분야의 영향과 과제(최세균)
- 제 3호 농산물 수출증대의 요인과 경제적 파급효과
- 신선농산물을 중심으로 - (문한필, 김경필, 어명근, 전형진)
- 제 2호 2011년산 쌀 수급 전망 및 시사점(한석호, 송준호)
- 제 1호 2011년 김장시장 분석과 전망(이용선, 서대석)

KREI 농정포커스 제51호

한·미 FTA 발효 1년, 농업부문 영향 분석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3. 3. 13

발 행 2013. 3. 14

발 행 인 최세균

운영위원 김정호, 박준기, 이명기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문원사

02-739-3911

munwonsa@hanmail.net

ISBN: 978-89-6013-445-4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